

“민주 성지끼리 경제·문화교류 늘리자”

5·18묘지 방문獨 라이프치히 경제시장 알브레히트 씨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들의 묘역을 보고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한국 민주화 성지이자 문화 수도인 광주와 동독 민주화 운동의 시발지이며 문화·컨벤션도시인 라이프치히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우베 알브레히트(54) 경제시장 일행이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분향한 뒤 1시간 가량 묘역과 5·18 추모관을 둘러보며 5월 정신의 의미를 새겼다.

이들은 5·18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고통의 역사와 광주민주화운동은 매우 인상 깊다”며

“세계 민주화의 물결은 맥을 같이 할 수 있으며, 특히 5·18 정신과 한국의 민주화 발전은 많은 국가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날 광주시와 경제·문화 우호 교류협력을 위해 방문했지만,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의 역할을 전례 들고 이날 전격적으로 5·18 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의 고향 라이프치히도 동독의 민주화와 독일 통일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도시라는 인연이 작용했다.

구 동독 치하의 라이프치히 시민들은 지난 1989년 10월 9일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기도회를 가진데 이어 시내를 돌며 비밀경찰 슈타지의 압제에 항의하며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것이 독일 통일과 동독 민주화의 시발점인 ‘라이프치히 월요시위’다. 시위 후 한 달 만에 동서독을 가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월요시위 당시 학생으로 민주화 시위에 동참한 알브레히트 경제시장은 “독재정권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며 “비슷한 역사를 가진 라이프치히와 광주가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늘려 상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가브리엘레 골드프스 국제협력국장은 “라이프치히에는 월요시위를 상징하는 기념관 등의 시설물이 없다”며 “국립 5·18 민주묘지를 보니 독일로 돌아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독일 라이프치히 우베 알브레히트(가운데) 경제시장 일행이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다문화가족포럼 대표 정준양·김양희씨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인 ‘다문화가족포럼’의 공동대표로 정준양(사진·오른쪽) 포스코 회장과 김양희 중앙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고 여성가족부가 10일 밝혔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정준양 회장과 김양희 교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성장을 위한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며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건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포럼은 지난해 9월 다문화가족 관련 각계 전문가 등 99인으로 창립된 기구로,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다.



새터민·이주여성에 무료 법률상담

나주 첫 개업 강동신 변호사…19개 읍면동 순회

변호사가 단 1명도 없던 고향에서 개업한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과 강연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최근 나주시 성북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강동신(39) 변호사. 강 변호사는 오는 21일 남평읍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처리와 상속법을 주제로 법률사례 설명과 고충상담을 시작해 4월말까지 19개 읍면동을 돌며 순회상담을 벌인다.

강 변호사는 최근 나주경찰서와

“법률지원협약”을 맺고 나주에 사는 500여 북한이탈 주민과 결혼 이주여성·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다.

그는 “광주에서 1년여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고향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면서 “고민 끝에 고향에 정착, 내일 치러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주의 경우 시 소재지임에도 변호사가 없는 대표적인 ‘무변(無辯)지역’으로 토지소유권 다툼과 부동산 등기절차, 교통사고와 중종(宗中)문제 등 농촌형 분쟁사건이 많은 곳이다. 나주는 전체 인구의 36%가 전업농인데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4%에 달하고, 탈북·다문화 가정이 500여 가구나 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광주 184명, 순천 33명, 목포 6명, 해남 6명, 장흥 1명 등의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나주초와 전남대를 나온 강 변호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부모님 모시듯 돌봐드려요”

강진의료원 ‘사모님 봉사대’ 화제



왼쪽부터 장채숙, 김인숙, 기귀중, 박영임씨.

“저희가 부모님처럼 돌봐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직원 가족들이 나섰다. 주인공은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강진의료원 ‘사모님 봉사대’.

‘사모님 봉사대’는 박영걸 의료원장의 부인 김인숙(62)씨와 민병채 방사선과과장 부인 기귀중(64)씨, 유재국 약국장 부인 박영임(67)씨, 박노성 원무과장 부인 장채숙(63)씨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지난 1월부터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접수를 비롯, 안내, 수납에 이르기까지 진료에 따른 모든 과정을 돕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는 날에는 직접 휠체어를 밀며, 진료부터 약국 이용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부모님 모시듯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광주향교 봄 석전제 13일 봉행



광주향교(전교 정남호·사진)는 공기(孔紀) 2562년 봄 석전제(釋奠祭)를 13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대성전에서 봉행한다.

석전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에게 올리는 전통 제례의식으로 매년 봄, 가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초순 10갑자의 丁자가 들어가는 날)에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향교에서 거행하고 있다.

광주향교 대성전에는 공자·증자·맹자 등 5성(五聖)과 송조(宋朝) 2현, 최치원·정몽주·조광조 등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문의 062-672-7008. /김대성기자 bigkim@

인사

◆우정사업본부

▲전남체신청 사업지원국장 최윤모 ▲광주우체국장 정득수 ▲여수우체국장 주을룡 ▲목포우체국장 조의훈

◆국토해양부

◇국장급 전보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파견 지휘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고철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사진전



지난 1998년 ‘통일소’를 물고 북한을 방문하는 정주영 회장.

오는 21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0주기를 앞두고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추모 사진전이 10일 개막했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정 명예회장의 가족들을 비롯해 추모위원장인 이흥구 전 국무총리, 정병국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주요 인사와 지

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전은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이날 말 밤엔 대 주요 사업장에서도 진행된다.

사진전에는 정 명예회장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 기업인 ‘현대’를 일궈내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기까지 그의 생애와 업적, 기업 활동모습 등을 담은 사진 130여점이 전시됐다.

/연합뉴스

도산 안창호선생 73주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이자 민족계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1878.11.9~1938.3.10) 선생의 73주기 추모식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서 열렸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남관우 광복회 부회장, 흥사단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광남 강사에서 태어난 선생은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민족회를 조직하고 1905년 이를 공립협회로 재창립해 공립신보를 발행했다. 1906년 귀국한 선생은 이듬해 비밀결사인 신한회를 결성해 구국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흥사단을 결성, 민족계몽운동과 국민회복 활동에 매진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들어서자 임정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에 취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연합뉴스

수협중앙회 어업인 자녀 장학금 2200만원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앞줄 왼쪽)는 10일 오전 전남대에서 이 학교 어업인 자녀 11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남대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최종남·임수영씨 차남 웅선군 연규석·권정임씨 장녀 혜경양=12일(토) 오후 1시 수원노블레스 웨딩컨벤션 6층(아모리스홀)

▲이상열·박효숙씨 장남 병률군 이한성(송원고 교사)·최수복씨 장녀 슬기양=12일(토) 오전 11시 한국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정학수(삼도초교 교장)·윤남호씨 장남 석훈군 정광준·조보금씨 장녀 지영양=12일(토) 낮 12시 40분 한국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현성권(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무국장)·정혜자씨 차남 대웅(전남대 병원의사)군 정해석(KT 상무지점 팀장)·김정자씨 장녀 수영(광주 삼육중학교 교사)양=13일(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국교직원공제

회 광주회관 3층.

동창·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교(광주상고·여상고, 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김형운) 2011년 유은동문 한마음 대축제 임원초청 만찬 겸 1차 정기 이사회=11일(금) 오후 7시 포에버리더스클럽 컨벤션홀(교보생명 10층)

종친회

▲황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황양선)=11일(금) 오전 11시 화정동 신정(터미널 남쪽 육교), 062-365-090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계 1차 정기 이사회=11일(금) 오후 7시 포에버리더스클럽 컨벤션홀(교보생명 10층)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 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력으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사주 쉽게 배울 본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학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활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탈장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로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謹 삼가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박형래 님(남/86세) 子/子婦: 박두식 / 김희애 孫 : 박태식, 소영 • 호실401호 • 발인:3월 11일 • 장지:영락공원 故 박민석 님(남/62세) 子/子婦: 박지훈 女/婿: 박은희 • 호실101호 • 발인:3월11일 • 장지:화산선영	故 김일영 님(남/73세) 子/子婦: 김석대 / 양희순, 석두 / 박영이 孫 : 석우 / 김지은 • 호실301호 • 발인:3월11일 • 장지:영락공원
--	---

바 유가족 권인한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謹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弔

故人 박연중 님(남/70세) 子/子婦: 박승명/김순덕, 수정/이명화, 김현/조미순 女/婿: 박태현/허우정 태현/박미란, 심현/김현숙 女: 박신자, 민애, 심덕순자:선동, 선국, 창진, 선우, 승룡, 홍진, 기룡 • 발인: 3월 12일 9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12	故人 김승철 님(남/76세) 未亡人: 정금옥 子/子婦: 김낙형/김영희, 현조/김복환 女/婿: 김선희 • 발인: 3월 12일 08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7
故人 조의순 님(여/91세) 子/子婦: 배석철/윤정숙 女/婿: 배현순/권동희, 현숙/김성수 • 발인: 3월 12일 9시00분 • 장지: 곡성 묘사동 관리 • 연락처: 250-4410	故人 김경래 님(여/85세) 子/子婦: 서대현/김 현 女/婿: 서옥남/정용환, 승희/이재운, 정아/정종범, 영순/주영기, 남순/오병환, 수경/송경태 • 발인: 3월 12일 08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13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